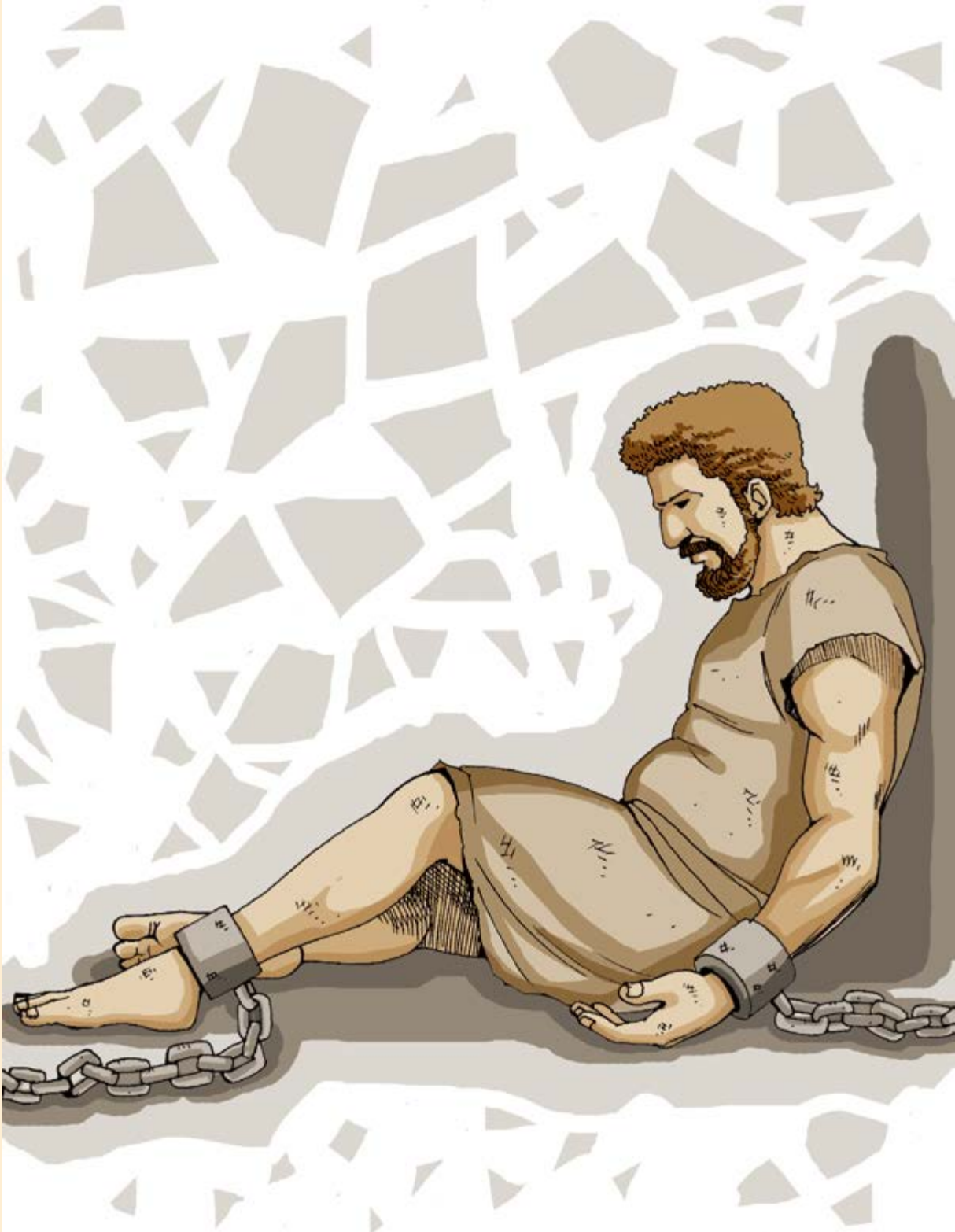


# 11 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7:1~18, 18:9~12



화가 난 살만에셀왕은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고 사마리아성을 삼 년 동안 애힌싸 성을 빼앗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께 나쁜 일만 행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앓수르의 살만에셀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붙잡아 신하로 삼고 <sup>1)</sup>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앓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앓수르 왕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화가 난 살만에셀왕은 이스라엘에 다시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고

<sup>2)</sup>사마리아성을 삼 년 동안 에워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앓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sup>1)</sup>조공: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바치던 예물

<sup>2)</sup>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성  
경  
암  
송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9)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들처럼 아세라상을 세우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며 하늘의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또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셨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은 왜 앗수르 왕에 의해 멸망했나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에스겔 33:11 말씀을 찾아 적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셨습니다 하라 (에스겔 33:11)



하나님께서서는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놈들, 무조건 혼내 줄 거다.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 아니냐!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왜 써 놓으셨을까요?



나의 잘못을 돌아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만일 끝까지 여러분이 위에서 적었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위에서 적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적어 보세요.

나의 계획

나의 기도

## 예 화



### 옛 생활을 버리는 것

옛날 중국의 어진 임금인 어느 동네를 지나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하여 궁궐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 입혀 놓으니 거지가 아니라 귀여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임금은 자식이 없던 터라 왕후와 의논하여 그 거지를 왕자로 맞이들였습니다.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궁궐이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사는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의 방을 꾸며 고급 침대에 비단 이불을 펼쳐서 그곳에서 왕자가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왕자의 방에 가보니 왕자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궁궐을 샅샅이 뒤져도 왕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지혜있는 신하 한 사람이 전에 왕자가 생활하던 다리 밑으로 가 보았더니 왕자가 거적매기를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궁중으로 데려왔으나 다음 날 밤에도 왕자는 궁을 빠져나가 더러운 거적매기를 쓰고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임금 앞에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임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님난

선생님난